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해방된 삶

(로마서 7:1~13)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해방된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해방된 삶”

행동 규칙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주신 행동 규칙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외에 주어진 행동 규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9시까지 출근하라, 퇴근은 6시 이후에 하라”는 규칙이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든 규칙을 포함하는 말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행동 규칙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면 이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든 직장의 규칙이든 가정의 규칙이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든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는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해방이라는 말에는 자유라는 개념 못지않게 윤리적 방종이라는 개념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윤리적 방종의 상태를 방임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 복음은 방임이나 조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앞선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행동 규칙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결과 나의 행동 규칙이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바뀌는 상태를 말씀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7절 이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이 발생함을 보았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성경에 제시된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행동 규칙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만 이것은 자유방임이 아닙니다. 기존에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부담과 제약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행동 규칙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 행위를 해나가시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7절부터는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 내부의 동인이 무엇이냐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어떤 행동 규칙에 대해서도 매일 필요가 없이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어떤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행동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과 부담감 없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려운 점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일어나는 행동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내 안에서 어떻

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법의 속성을 남편 있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라는 법에 매인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로 여겨졌습니다. 다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이러한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결혼 법을 예로 들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성경의 율법을 포함하여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행동 규칙을 포함합니다. 모든 행동 규칙은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만 그 효력이 적용됩니다. 행동 규칙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빗나감의 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빗나감의 죄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행동 규칙을 따라 사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율법을 받고, 죄의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행동 규칙을 받게 됩니다.

죄의 상태란 의식과 마음이 육체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의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으로부터 의식으로 있음을 느끼고 마음으로 좋음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식과 마음이 향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기에 빗나감이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빗나간 상태에서 행동 규칙을 받아들이고 살 때는 의무감과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행동 규칙은 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죽고 나면 세상의 모든 행동 규칙은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남편 있는 여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인격의 속사람인 의식과 마음이 결혼한 대상은 육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율법과 행동 규칙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마음에 의무감과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일입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곧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한 상태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끊어지고 나면 더는 육체가 짊어진 어떠한 행동 규칙도 지킬 필요가 없기에 어떤 의무

감과 책임감과 부담감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유체이탈을 해서 나의 의식과 마음이 몸과 분리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의식과 마음이 육체 바깥으로 나와서 거하는 상태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서 지켜야 할 계명이나 율법이나 모든 행동 규칙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부담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책임과 부담이 느껴지는 이유는 나의 속사람인 의식과 마음이 몸과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율법에 의무와 부담을 느끼고 회사나 사회에서 행동 규칙에 대해 의무와 부담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의식과 마음이 결혼이라도 하듯이 육체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행동 규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들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부담을 느끼면 몸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데도 싫고 힘든 규칙을 따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는 모든 행위는 죄악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하듯 달라붙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행동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적인 상태가 없었다면 그 어떤 행동 규칙도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규칙을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장에 9시까지 출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산상수훈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한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면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행동 규칙에 대하여 부담감과 책임감과 의무감도 없이 10시, 11시까지 잠을 자도 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는 규칙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천근만근 같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세수하고 옷 입고 출근을 하려는 것은 죄악의 상태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위를 하려 한다면 그것은 죄의 상태입니다. 율법이나 행동 규칙 아래 있다는 것은 죄악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의식과 마음이 몸과 결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육체를 움직여야 한다는 행동 규칙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과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한 상태를 파기하기 위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났습니

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때 나에게서도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한 상태인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한 상태가 파기되었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지키거나 수행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4절 하반부를 보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의식과 마음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몸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에 달라붙으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행동 규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다른 몸과 결혼하게 됩니다. 내 몸과 결혼한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과 직면하시는 위치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이 이러하신 예수님의 몸과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마주보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의식과 마음이 육체의 몸에 달라붙어 있을 때와 예수님의 몸에 달라붙었을 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의식과 마음이 육체의 몸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육체를 통해 만나는 세상 것들을 직면하고 세상 것들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 좋다 싫다 반응하고 좋은 것은 얻으려고 하고 싫은 것은 피하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몸과 결혼한 상태를 파기하고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결혼한 상태가 되자 더 이상 세상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 대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의식과 마음이 반응하는 상태가 유지될 때에 몸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끌어가시게 됩니다.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결혼해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직면하여 반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의 복사판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몸을 움직여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온전한 인간의 상태를 제시해주시기 위함입니다. 1~6절까지는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함을 이야기하고, 7절 이후에서는 어떠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읽으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이라는 부분을 풀어보면 “우리의 인격의 핵심인 의식과 마음이 육신에 붙어있을 때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도 죄의 정욕은 있었습니다. 죄는 바로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식과 마음은 육체가 만나는 세상 것들을 향하여 반응합니다. 세상 것들의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러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식과 마음이 죄의 상태에 있었기에 그로부터 나오는 행위 또한 죄에서 나오는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75억 인구는 스스로 행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죄악입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아보일지라도 사망으로 끝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악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육체를 움직여서 나타난 행위라면 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 규칙인 율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행위를 비추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악의 열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달라붙어 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오감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 있음과 좋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한 상태이고 이로부터 반응이 생겨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몸을 움직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몸을 행동 규칙에 맞추거나 율법에 맞추려고 하는 등의 내가 내 몸으로 행위 하는 모든 일은 죄에서 나오는 악입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행위 하는 존재로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위 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죄악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이 죄악의 상태가 죽게 되고, 그 결과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행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 되는 이유는 나의 몸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몸은 성령님과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식과 마음이 몸과 결혼한 상태가 죽고 나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결혼하게 되면 나의 몸은 하나님의 생각의 복사판 영이신 성령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의 결혼 상대자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몸의 결혼 상대자 역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결혼해야 될 대상은 의식과 마음이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의식과 몸이 결혼해야 될 대상 또한 나의 몸이 아닌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이 성령님과 결혼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나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인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행동 규칙에 대해 어떠한 부담감과 책임감도 갖지 않게 됩니다.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회사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들어간 회사이기에 성령님께서 나의 몸을 움직이시며 9시까지 출근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사야서 40장 30~31절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세상의 행동 규칙들은 무겁고 싫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한 죄악 된 상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를 움직여야 되는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던 육체의 움직임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됩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결혼하였기에 더 이상 세상의 행동 규칙들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의식으로는 오직 아버지만의 있음만을 느끼고, 마음으로는 오직 아버지의 좋음만을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 몸은 성령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몸을 아버지의 생각과 힘이신 성령께서 움직이시기에 의식과 마음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고롭거나 괴롭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글로 옮겼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행

동 규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방종이나 윤리적 기준을 깨뜨림이 아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의 말처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하고자 함도 아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은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서 결혼을 하였다. 그럼으로써 나의 의식과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몸은 아버지의 생각의 복사판 영이신 성령님과 결혼을 하였다.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몸을 움직이시기에 나는 어떠한 행동 규칙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나의 의식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행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는 중에 몸은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을 일들을 지키고 실행하게 되었다. 행위의 모든 규칙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너끈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관찰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자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분해하듯이 펼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육체와 결혼한 상태에서는 육체가 짊어진 모든 행동 규칙에 대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가정주부가 밥을 짓는 것조차도 행동 규칙이면 부담이 되고 싫은 일입니다. 그 부담을 느껴야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몰두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상황 또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언뜻 제목을 보고 말씀을 겉으로 듣기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의 내용이 십자가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관찰한 내용이오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